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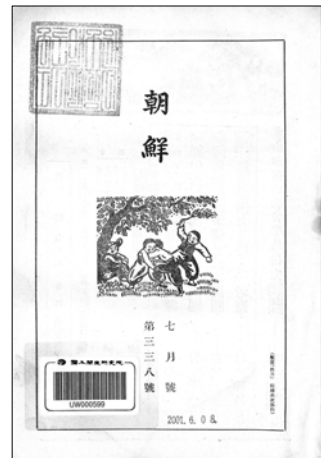
64 月刊「朝鮮」總目次 월간「조선」총목차

1943년 / 조선총독부 / 12.10-04 조53잡 1943

월 간「朝鮮」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다. 1911년 6월호부터 1915년 2월호까지는「朝鮮總督府 月報(조선총독부 월보)」라 했고, 1915년 3월호부터 1920년 6월호까지는「朝鮮彙報(조선회보)」라 했다. 1920년 7월호부터「朝鮮」이란 이름으로 193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朝鮮」은 조선총독부 기관지로서 25년 간 지속되었다. 필자는 국토개발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식민지하의 우리나라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던 중 조선총독부 기관지인「朝鮮」이란 잡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5년 간 간행된 300권의 책을 일일이 뒤져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총 목차를 탐문하던 중 동경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자료는 1982년에 동경에 있는 친구 김해곤(金海坤) 사장에게 부탁해서 복사해 온 것이다.

일본인들도 총 목차의 필요를 느꼈음인지 총목차는 한일합병 다음해인 1911년부터 1935년까지 27년 간의 글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는 ① 통치에 관한 글, ② 행정, ③ 체신, ④ 경찰, ⑤ 사법, ⑥ 교통, ⑦ 재정, ⑧ 경제, ⑨ 금융, ⑩ 농업, ⑪ 임업, ⑫ 수산



업, ⑬ 광업, ⑭ 상공업, ⑮ 교육, ⑯ 역사, ⑰ 지리, ⑱ 종교, ⑲ 기행문, ⑳ 동식물, ㉑ 잡기 등이다.

한편 1913년부터 1937년까지는 월별로 목차를 수록하고 있다. 글의 내용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가령 이완용(李完用)이 쓴 ‘토지조사를 마치고’라는 글도 있고, 1923년 10월호에는 ‘압록강교량, 조선호텔, 경성역사 건축에 관하여’라는 글도 있다. 1926년 4월호에는 ‘경성제국대학의 규모, 조직과 특색’이란 논문도 있다. 1923년 7월호에는 ‘百(백)자를 이름 또는 號(호)로 사용한 이조의 인물’이란 이색적인 논문도 실려 있다.

그런가 하면 1931년 6월호에는 ‘조선에 있어서의 지진의 기록’이란 논문도 있다. 1917년 9월호에는 ‘이조 500년 간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돌다리’라는 글도 실려 있다. 1916년 12월호에는 ‘조선 최고(最古)의 지리서에 관하여’란 논문도 있고, 1921년 4월호에는 ‘조선의 지도에 관하여’라는 글도 보인다. 또한 1926년 11월호에는 ‘조선의 옛날 地學’이란 논문도 있다. 1923년 11월호에는 ‘조선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란 關野(세키노) 박사의 글도 실려 있다.

어쨌든 이 목차는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당장에 본문을 찾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